대한민국 불행한 역사의 사슬 끊고 미래로

창사 65주년에 부쳐

광주일보가 오늘로 창사 65주년을 맞습니다. 1952년, 6·25전쟁 중이던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고고(呱呱)의 성(聲)을 울린 광주일보는 예순다섯 성상(星霜)의 적지 않은 세월이 흐른 지금, 호남의 대표 정론지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정론(正論)을 편다' '문화창달의 선봉에 선다' '지역개발의 기수가 된다'는 세 가닥 사시(社是)를 근간으로 줄기차게 달려온 광주일보는 호남 대표 언론으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 숱한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험난했던 형극(荊棘)의 길을 어찌 몇 마디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강한 자의 횡포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따듯이 보듬어 안는 '억강부약'(抑強扶弱)의 한결같은 원칙 아래, 오로지 언론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 온 것만은 감히 자부해도 될 듯합니다.

광주일보의 65년은 그대로 대한민국과 호남의 역사 그 자체라 할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의 수난과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우리 사회의 대격변기를 거치며 광주일보는 겨레와 함께, 호남 지역 주민과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 해 왔습니다. 오늘 광주일보의 창간일을 맞아, 광주일보가 호남 대표 언론의 위상을 꿋꿋이 지켜 올 수 있었음은 오로지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최근 몇 달 동안 헌정사의 오욕(汚辱)으로 남을 참으로 참담한 장면을 보아야 했습니다. 평소 공들였던 올림머리를 풀어헤친 채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아버지 박정희를 얘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 며칠 전 구속기소됐으니 이제는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된 박근혜 씨. 그는 4년여 전만 해도 '87년 체제' 이후 당선된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과반 득표율(51.6%)를 얻어 박수와 환호 속에 청와대에 입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사상 첫 파면의 불명예 속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영어(囹圄)의 몸이 됐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강탈해 사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농단이 계속되는 사이 세월호는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수백 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선체는 뭍으로 올라왔지만 아직도 9명의 귀중한 생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혹만 남긴 채, 뒤늦게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타나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도 구하기가 힘드냐"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하여 끓어오르는 분노를 모두들 가슴에 안고 천만을 넘는 국민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주부도 넥타이를 맨 회사원도, 극히 일부인 극우 세력만 제외하고는 너도나도 모두 광화문으로 금남로로 달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처럼 위대한 촛불의 힘에 의해, 우리는 오는 5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침 광주일보 창사 65주년을 맞아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이 시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 딱 1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시계가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지금, 벌써부터 온갖 네거티브와 '가짜뉴스'(Fake News)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과거 '카더라' 식의 흑색선전과도 다릅니다. 언론에 보도됐다거나 유명 인사가 말했다는 식으로 공신력을 이용하지만, 결국 대(對)국민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작년 미국 대선을 계기로 페이스북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 가짜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입니다.

독자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가짜뉴스가 판치는 현실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전통적인 신문의 역할과 중요성을 생각해 봅니다.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신력 있는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광주일보는 빠르고 공정하며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을 도울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사회적 공기(公器)이자 깨어 있는 파수꾼으로서 '팩트'(Fact)를 존중하고 진실을 찾는 저널리즘 본연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제도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지 꼭 30년이 됐습니다. 이제 2주 남짓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통령 선거. 우리 모두가 리더십에 대해 특히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나라의 명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되든 정권 교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박 전 대통령의 참담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숱한 난제를 풀어 나갈 좋은 리더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불행한 역사의 사슬을 끊을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광주일보는 우리 정치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가운데 다시는 호남이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역 동반자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것임을 다짐합니다. 바른 여론 형성과 현안 해결 등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다하되 지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호남을 대변하는 대표 신문으로서 명예를 지키겠다는 굳은 약속도 드립니다.

광주일보 창사 65주년을 자축하면서 그동안 애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기고

DJ와 링컨에게 우리의 길을 묻다

김 봉 중
전남대 사학과 교수

5월 9일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한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컸던 만큼 새로운 대통령과 그가 이끌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요즘 자꾸 김대중 대통령과 링컨 대통령이 생각난다. 나는 2009년 8월 DJ를 보내며 광주일보에 'DJ 시대, 이제 막 시작이다'라는 글을 투고했다. 1997년 내가 14년의 미국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후 처음으로 지역 신문에 기고한 그 글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민주, 인권,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DJ를 코리아의 영웅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과연 우리가 우리의 민주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회의적으로 보느냐, 세계 속의 우리의 위상에 대해 확신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지역과 당, 그리고 개인적 호 불호 관계를 떠나 미국인들이 링컨을 추앙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DJ를 추앙해야 한다. 미래는 우리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DJ의 시대, 이제 막 시작이다."

그 글을 쓴지 약 8년 만에 다시 광주일보에 이 글을 기고한다. 놀라운 것은 그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 같다는 것이다.

1860년 노예해방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링컨이 당선되자 남부 주들은 하나 둘씩 연방에서 탈퇴하기 시작했다. 건국 이후 70여년을 버텨온 미국 연방이 해체되기 시작했고, 남북전쟁의 내전이 터지고 말았다. 그런데도 링컨은 의회연설에서 미국이야말로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최고의 희망"이라고 자부했다.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링컨은 국민들에게 미국 민주주의와 그 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드러냈다.

링컨은 내전의 혼란 속에 미국의 가치와 의미를 되물었다. 그리고 내전 후에 미국을 어떤 가치위에 다시 세워야하는지를 고민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의 정부"라는 구절로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이 탄생했다. 그런데 그 연설에서 링컨은 한 번도 '미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링컨에겐 나라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지금,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적폐 청산, 안보, 경제, 민생, 개헌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다양한 공약과 그에 대한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무엇이며, 어느 가치에 세워져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통일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 것이며, 그리고 세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 모두들 큰 그림보다는 작은 그림을 그리는데 분주하다. 그래서 DJ와 링컨이 그립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클 수가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선거후풍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현실이다.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시리고 아픈 현실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기억해야 한다. 이런 비슷한 선거를 통해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DJ를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으신 분"으로 송찬했다. 그러나 아직은 DJ가 민주주의, 평화, 인권의 사도(使徒)로서 우리 시대와 대한민국을 대표할 상징적인 인물로 재탄생되고 있지 않다. DJ의 역사적 가치는 향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성숙에 달려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위상에 달려있다.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 "절대 좌절해서는 안 된다.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의 끈을 굳게 붙잡아야 할 때이다. 8년이 지났지만, 'DJ 시대, 이제 막 시작이다'는 여전히 유효하다.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볼 때 8년은 아무 것도 아니다. 링컨이 진정한 미국 민주주의 영웅으로 추앙받기 까지 무려 100년이 걸렸다. 진정한 '인동초(忍冬草)'가 피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겨울을 나야할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링컨이나 DJ같은 대통령이 당장 탄생하지 않아도 좋다. 그와 같은 지혜와 믿음을 갖는 국민들이 있으니 말이다.

無等鼓

추억 소환용 '그림'

매년 새해가 되면 회사 책상 위에 둘 탁상 달력을 고른다. 올해는 양나희 작가의 그림이 실린 달력을 골랐다. 그녀의 그림을 팸플릿이 아닌 '실물'로 본 건 지난해 광주국제아트페어에서였다. 정겨운 풍경을 담은 소품들을 보는데, 마음이 따뜻해졌다. 몇 달 후 개인전에서 만난 대작들에서는 또 다른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작품은 재료가 독특하다. 포장용 골판지를 자르고 덧대 작품을 만든다. 소재도 소재지만, 그녀가 주목하는 풍경들에 마음이 끌렸다. 그녀는 '세월처럼 차곡차곡 쌓인 골판지 위에 추억이 담긴 동네들'을 '그리운 이의 이름을 낮게 읊조리듯' 그려 넣는다.

출근하면 어김없이 날 반기는 그 달력의 4월 그림은, 언덕배기 어느 마을이다. 그곳에 빽빽이 들어선 집집들은 저마다 눈물과 웃음이 담긴 사연을 담고 있을 터다. 어디선가 본 듯한 풍경이다. 후배 기자에 따르면 그녀의 그림을 보는 많은 이들이 "내가 살았던, 내가 아는 동네 같다"는 말을 한다고 한다. 서른다섯 그녀가 '바라보는' 세상을 함께 '바라보다' 보면 많은 생각이 떠오른다.

추억을 소환하는 또 하나의 그림이 최근 화제가 됐다. 영국 BBC에 소개된 이미경 작가의 '구멍가게' 시리즈다. '사라져 가는 한국 편의점의 매력'(The charm of South Korea's disappearing convenience stores)으로 소개된 기사는 그녀가 20년간 그려 온 구멍가게 그림을 다루고 있다.

하얀 도화지 위에 등장하는 건, 어릴 적 우리가 돈이 생기면 쪼르르 달려가곤 했던 그 흔한 동네 구멍가게다. 봄엔 화사한 꽃을 피우고 여름엔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 한 그루, 누구나 편히 쉬어 갈 수 있는 평상, 동네 아저씨가 세워 둔 낡은 자전거도 보인다. '엄마 슈퍼' '종점 슈퍼' 등 이름도 정겹다.

'이미경의 그림 이야기'(www.leemk.com)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을 한 장 한 장 클릭하다 보면 절로 행복해진다. 그녀의 그림과 가게에 얽힌 사연은 최근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남해의 봄날)란 제목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

두 작가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추억으로 떠나는 차표를 쥔 듯한 기분이 든다. 누구나 한번 떠나 볼 일이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고규홍의 '나무 생각'

삶의 창, 나무의 이름

개나리와 목련 따라 곱게 피었던 진달래꽃도 떨어졌다. 꽃 지고 난 뒤 짙어지는 초록 잎 사이로 보랏빛 철쭉꽃이 원색의 향연을 이어 간다. 서둘러 꽃봉오리를 연 철쭉꽃, 빛깔도 생김새도 진달래꽃을 빼닮았다.

꼼꼼히 살펴보면 구별이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꽃송이만으로는 헷갈리기 쉽다. 하지만 반드시 구별해야 할 이유가 있다. 둘 중 하나는 먹어도 되지만 다른 하나는 잘못 먹으면 탈이 난다. 진달래꽃은 화전을 부쳐 먹거나 술을 담가 먹기도 하지만, 철쭉꽃은 독을 품고 있다. 옛 사람들은 그래서 먹어도 좋은 진달래꽃을 참꽃이라 했고, 먹으면 안 되는 철쭉꽃을 개꽃이라 했다. 오로지 먹느냐 못 먹느냐의 기준으로 참과 거짓을 나누었다.

자연물에 우리가 부여한 모든 이름이 그러하지만, 나무 이름에는 '사람살이'의 오랜 자취가 고스란히 배어 있다. 먹고사는 일이 절실했던 시절에 사람들은 하릴없이 식량을 찾아 헤맸고, 굶주린 배를 채워 주는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여겼다. 당연한 일이었다.

남루한 살림살이의 자취가 담긴 나무 이름은 또 있다. 지금 한창 물을 끌어올리며 꽃봉오리를 피워 올리는 조팝나무와 이팝나무가 그렇다.

가지마다 다닥다닥 피어나는 꽃송이가 꽃방망이를 이루는 조팝나무의 화려한 꽃을 보면서 우리의 옛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건 하얀 쌀밥에 노란 좁쌀을 얹어 지은 조밥이었다. 꽃송이 가운데에 점점이 피어난 노란 꽃술이 그렇게 보였다. 같은 꽃을 놓고, 서양 사람들이 '결혼하는 신부의 화환'('simple bridalwreath spiraea')이라는 더없이 청초하고 화려한 이름을 부여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나온 시절이 얼마나 궁핍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이팝나무도 그렇다. 나뭇가지 위에 소복이 피어난 하얀 꽃무더기를 보고 사람들은 하얀 쌀밥, 그것도 사발 위에 수북이 담은 고봉밥을 먼저 떠올렸다. 때마침 꽃 피어날 즈음이 모내기철인 까닭에 사람들은 탐스럽게 피어난 꽃을 바라보며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날을 소망했다. 한 해 농사를 갈무리하는 가을에는 이팝나무 꽃처럼 넉넉하게 먹을 쌀밥을 생각했다. 쌀밥의 다른 표현인 이팝을 나무 이름으로 붙인 연유다. 주린 배를 움켜쥐고 모내기에 나서야 했던 옛 사람들의 절박함이 묻어 있는 이름이다.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더불어 살아 온 나무에 사람들이 붙인 이름은 '사람살이'의 모든 자취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참꽃·개꽃이 그렇고, 이팝나무·조팝나무가 그렇다. 나무 이름은 결국 우리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삶의 창이다.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는 이름이지만 결코 버릴 수 없는 우리 삶의 자취를 보여 주는 이름이다. 남루해도 붙들어 안을 수밖에 없다.

지난 세기 최고의 생태학자 레이첼 카슨은 미완성 유고작 '센스 오브 원더'에서 "자연을 아는 것은 느끼는 것의 절반만큼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덧붙여 "이름을 식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처럼 가치 없는 목적도 없다"며 자연 대상으로부터 생명의 경이와 신비를 느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물도감을 뒤적이며 나무를 구별하기에 앞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우리 곁에 살아 있는 나무에 담긴 의미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했다. 나무 이름 안에 담긴 생명의 의미, '사람살이'의 의미를 새겨 보라는 말이다. 우리 산과 들에 서 있는 나무 이름에 담긴 삶의 진정성을 짚어 보는 일은 그래서 이즈음에 꼭 필요한 일이지 싶다.

선거의 계절, 말의 성찬이 펼쳐진다. 걷잡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진다. 가슴에 오래 남는 말보다는 아무런 잔향도 남기지 않고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 더 많다. 풍성하게 벌어진 말잔치에서 정작 진정성을 담은 참된 말은 턱없이 적어 보인다.

절실한 경험도 깊은 사유도 없이 허투루 쏟아 내는 말투성이다. 제아무리 화려한 언변과 높은 음량으로 과장해 봤자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다. 공허할 뿐이다. 그러니 지금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오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온 나무 이름에 담긴 삶의 진정성을 절실하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 계절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지역성 살린 우리밀 맥주 또 하나의 문화상품

며칠 전 광주의 '핫플레이스' 동명동에서 색다른 펍(Pub)을 찾았다. 1963년 지어진 양옥을 리모델링해 분위기도 멋들어졌으나, 무엇보다 이곳에서 파는 수제 맥주 맛이 기가 막혔다.

동명동 '에프터 웍스'는 양조장까지 갖추고 있다. 개인이나 주점에서도 술을 직접 만들고 판매할 수 있도록 주세법이 바뀌면서 가능한 일이다. '에프터 웍스'에서 판매하는 수제 맥주는 '무등산 필스너', '광산 바이젠', '영산강 둔켈', '동명동 ESA', '광주 IPA' 등 5가지다. 조만간 캔 맥주와 병맥주 형태로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반가웠던 맥주는 '광산 바이젠'이다. 광산구는 국내 1위 밀 생산지로, '우리밀'은 광산구의 대표적인 작물이다. '광산 바이젠'은 우리밀을 사용해 만들었다. 일반적인 수제 맥주가 아니라, 그 속에 지역성을 녹여낸 또 하나의 문화상품이 아닐 수 없다.

'맛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광주지만, 그에 걸맞은 술은 없었던 탓에 늘 안타까움이 컸다. 예부터 풍부한 식재료와 젓갈과 홍어 등 빼어난 발효음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변변한 발효주가 없다. 술에 대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과거 선조들이 술을 빚을 때를 떠올려 보자. 우리 마을에서 직접 키우는 쌀과 과일 등으로 술을 담갔다. 그만큼 술은 그 고장에서 자란 쌀과 과일은 물론, 물과 미생물까지 녹아 있다. 그렇기에 지역성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상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내가 '광산 바이젠'을 보며 반가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맛의 고장 광주, 그리고 그 맛의 풍미를 더해줄 광주만의 술, 술 속에 스며있는 지역의 문화와 이야기.

오늘도 난 '퇴근 뒤 가볍게 한잔' 하러 '에프터 웍스'를 방문하련다.

▲김현옥·송정동 희망공인중개사 대표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